

aT, 내달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 미래밥상 그린다

4~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현장 중심 미래 성장전략 모색
전통주 판로 확대 등 산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콘퍼런스를 개최해 국제 식음료 추이를 살핀다. 또 우리 술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양조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대형 유통업체와 맺었다.

aT는 11월 4~5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화째를 맞는 이 행사는 ‘기술과 가치가 융합된 우리들의 오늘 그리고 미래 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2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4일에는 ‘식품’을 주제로 ▲일본 에지키 글리코(Ezaki Glico)의 미셸 리(Michelle Lee)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이 ‘아시아의 다음 식탁: 국경을 넘는 식품 브랜드 구축하기’를 발표한다. 또 ▲민텔(Mintel) 코리아의 이서운 애널리스트는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이 식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서울대 농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콘퍼런스 현장.

/aT

경제사회학부의 문정훈 교수는 소비자 구매·섭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푸드트렌드 2027’을 소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식품산업의 기회와 위협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 속 K-푸드의 기회와 위협(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분석과 K-푸드 패키징 대응 방안(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ESG 센터장)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인공지능혁신추진단장)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외식’을 주제로 소

비자 변화와 외식업의 성장 전략을 다룬다. 오전에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채센애 트랜센터장의 ‘AI가 대신할 수 없는 소비자의 진짜 영점(零點)에 주목해야 한다’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대표의 ‘혼자 살고, 오래 살고, AI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외식업의 기회’ ▲용인대 박승찬 교수의 ‘중국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이 외식시장에 미칠 파장과 K-브랜드의 대응 전략’ 등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식경영 해법에 초점을 맞춘다. ▲27년 경력의 샘키 셰프 ▲제이디브

랜딩 배문진 대표 ▲스페이스콘텐츠푸드(SCF) 양성욱 이사가 연사로 나선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온라인 실시간 중계 없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2027년 식품·외식 산업의 흐름을 확인하고, 강연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나누며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aT는 앞서 지난 8일 서울 GS타워에서 GS리테일과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aT의 전통주 산업 육성 사업과 GS리테일의 온라인 플랫폼 및 전국 유통망을 연계해 소비자의 전통주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양조장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와 GS리테일 전진혁 O40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aT는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와 양조장을 발굴·추천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관련 정보 제공과 콘텐츠 홍보,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탠다. GS리테일은 자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와 판매, 고객 참여 행사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역 농산물 활용과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에도 협력한다.

우선 GS리테일의 온라인 주류 주문·수령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를 활용해 소비자가 모바일로 전통주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한 뒤 가까운 GS25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온라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해 GS25와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 채널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계절별 전통주 기획전과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해 지역 양조장과 제품의 특색을 알릴 계획이다. GS리테일은 10월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주 전용관’을, 11월에는 ‘찾아가는 양조장’ 코너 개설을 추진하고 연말 공동 기획전도 논의 중이다.

aT의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우수한 전통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이 중요하다”며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양조장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재정부,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뽑는다

하반기 선정 절차… 12월 중순 마무리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기업 등 대상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에 관한 공급망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다.

지난 2024년 6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6개 기업 등이 선도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터 기본 3년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희망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급망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안정화 추진계획, 재무여건 및 이행능력 등을 담아야 한다.

이번 선정은 지난 12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을 반영해 추진한다. 개편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입선 다

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우선 지원과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욱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등과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협약식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정부 화재안전 정책 적극 지원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

농협중앙회가 행정안전부·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자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연계해 국민 화재안전에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행정안전부 화재안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취약가구

에 대한 선제적 예방망 구축에 나선다. 주요 협력사항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하나로마트 판매망 구축 ▲화재안전 대국민 홍보 등이다.

농협은 주요 민간 협력 파트너로서 3년간 총 3억원 상당의 연기감지기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기감지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를 통한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범농협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화재안전 수칙과 연기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며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GPS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옥내 저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전사 최초로 GPS 기반의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옥내저탄장 안전사고 제로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GPS 기술을 활용해 저탄장 내 작업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송수신한다. 특히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람을 전송해 신속한 구조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남부발전은 앞으로 출입 절차 교육과 지침 제정을 병행하고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전기공사協, 전력 산업현장 개선 ‘맞손’

상생협력 업무협약… 합리적 현장 조성

한국전력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력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전은 지난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공사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현장 공사 여건을 조성하고, 작업장 안전과 시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향상 ▲공사비 산정기준 및 계약조건 등 제도 개선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주요 현안 해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환경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고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한국전력은 지난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한전

“이번 협약은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안전과 품질은 함께 책임지고, 경쟁력은 세계로 키워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설계·시공·기자재·운영에 이르는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 애로 해소 총력

지사 네트워크 활용 접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전국의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자체와 지역별 수출 지원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수출지원 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자금난과 대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무역보험을 신속하기 지원하기 위해서다.

무보는 지난 9월 열린 ‘대구·경북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간담회’ 등에 참가해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가중 등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다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한 보험료 지원 사업 소개와 신속한 보증 심사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무역금융이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환율 급변동에 따른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밀착형 리스크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